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영향 요인 - 맞벌이 여부 및 돌봄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Paternal Childcare Time for Preschool Children and Its Determinants
on Working and Nonworking Days

승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 유 경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eui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Kim, Yooky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 행태와 영향 요인을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비근무일에 근무일의 3배 이상의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였으며, 참여율 또한 비근무일에 더 높았다. 둘째,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한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필수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들이 필수 돌봄에 발달 돌봄과 비슷한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을 고려하여 근무일과 비근무일 간에 돌봄유형별 돌봄 참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은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가정 내 돌봄 요구와 관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컸으며,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부부가 자녀 돌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

주제어: 아버지 자녀돌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근무일, 비근무일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2019 time surve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examine the childcare behavior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determinants, considering types of care and working/nonworking day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ternal childcare time of nonworking days was three times more than that of working days, and the participation rate was also higher on nonworking day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primary care and developmental care by fathers, whether from dual- or single-income families. Third, it seems that fathers adjust their participation in childcare between working days and nonworking days in consideration of the mother's time availability. Fourth, the variables related to childcare need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aternal childcare time on both working

* 주저자, 교신저자: 김유경(ykkim70@sewc.ac.kr), <https://orcid.org/0000-0001-6683-6482>

and nonworking days. Fathers' developmental care time was not explain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s entered into th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reduce fathers' working hours and increase family-friendly systems to increas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Fathers' percep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must also be changed.

Key words: paternal childcare, primary care, developmental care, working day, nonworking day

I. 서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 중 시간 자원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시간자원의 부족은 특히나 절실한 문제로 대두된다.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이나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은 특히 영유아기 자녀, 즉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주목하는 경향이다(김소영·진미정, 2015; 김외숙 외, 2016; 이재림·손서희, 2013). 가족의 전생애주기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가정 내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시기로, 이 시기 부모는 시간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아직도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참여는 어머니에 비해 부족하다.

아버지의 돌봄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동양육자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부 간 균형적인 양육 참여가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도¹⁾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시간 투입이 금전 투입보다 자녀 발달에 대한 생산성이 더 크다(Del Boca, Flinn & Wiswall, 2013)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논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 즉 부모권이나 가족생활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어머니와 참여시간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주로 참여하는 활동 또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자녀돌봄 활동은, 신체적 돌봄과 간호 등

을 포함하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돌봄 활동과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의 자녀의 발달과 관련되는 돌봄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두 가지의 돌봄 활동은 모두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제공하는 부모의 측면에서는 일상적, 기본적 돌봄 활동은 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과 반복훈련을 통한 숙련이 요구되며 참여 시간의 융통성도 적은 반면, 발달 관련 돌봄 활동은 참여 시간이 융통적이며 활동 자체의 특성도 상대적으로 여가적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돌봄활동 유형별로 양육자가 느끼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는 차이가 나게 된다. 돌봄유형 중 필수돌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버지들이 주로 어떤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사용한 시간의 총량만이 아니라 돌봄 활동의 유형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자녀돌봄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별도 분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가 돌봄에 사용한 총시간 또는 세부 행동별 시간을 각각 제시하는 경향이였으며, 돌봄의 내용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한 연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발달 촉진에 대한 관심으로 기본적 돌봄을 제외하고 상호작용적 돌봄행동만 분석하거나(고은주·김진옥, 2016), 시간에 따른 유형별 돌봄시간 변화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이정은·서지원, 2021)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이나 기타 가족역할 참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무일 내지 평일에는 참여 시간이 적고 비근무일 내지 휴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이현아·김선미·이승미, 2016). 따라서 아버지의 돌봄이 근무일과 비근무일 간에 참여 시간과 돌봄유형별 참여에서 어떤 특성과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녀양육을 함께 담당하는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은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맞벌이와 외벌이를 구분하

1) 박희숙(2016)은 메타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발달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관련 연구에서 아버지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이타적 행동(장영애·이영자, 2009), 사회성(서석원·이대균, 2014), 애착관계(이영환·백지은, 1998), 문제해결력(김광웅·이인수, 1998) 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 참여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차이(이정은·서지원, 2021)나 맞벌이-외벌이 아버지 간 돌봄시간 차이(서지원·이정은, 2021)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근무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바, 본 연구를 통해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시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시간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역할과 양육 책임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및 외벌이 가정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을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돌봄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아버지의 돌봄 참여의 양상과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별 돌봄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버지의 돌봄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돌봄 유형별 자녀돌봄 시간

선행 연구들에서 자녀돌봄 시간은 돌봄행동을 직접 돌봄과 간접 돌봄으로 분류한다. 연구에 따라 포함하는 행동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돌봄 행동을 주된 행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녀 돌봄을 부차적 행동으로 했는지 동시 행동으로 했는지 여기서 직접성의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자녀돌봄시간 연구를 보면, 자녀돌봄 시간에 간접 돌봄노동을 포함하여 분석하기도 하고(권순범·진미정, 2016; 박은정·이성림, 2013; 윤자영, 2018;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혹은 자녀돌봄 행동의 범주를 넓혀 여가 등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안수미 외, 2013). 하지만 생활일지 자료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은 직접 돌봄행동으로, 행동 분류의 '자녀 돌보기'에 포함된 행동에 '주행동'으로 사용한 시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의 필요에 따라 돌봄 관련 행동을 행동 자체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한 후 유형별 시간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연구별로 '신체적 돌봄'과 '비신체적 돌봄'(양심영·김유경, 2013), '기본적 돌봄'과 '상호작용적 돌봄'(고은주·김진욱, 2016), '필수 돌봄'과 '발달 돌봄', '기타 돌봄'(이정은·서지원, 2021)과 같이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신체적 돌보기와 간호 등의 행동과,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이주기와 같은 행동을 각각 유사한 성격의 행동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동일하다.

Bianchi et al.(2004)과 Craig & Millan(2011)은 미국의 시간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관계적(arrangement)

행동기준을 적용하여 놀이나 학습과 같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높은 특성을 가진 관계적 시간(engagement time/talk-based-care)과 그 밖의 기본적 보살핌 시간(Basic time)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돌봄에는 이와 같이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돌봄 행동과 자녀의 발달과 관련되는 돌봄 행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돌봄 모두 자녀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중요하며,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일상적 기본 돌봄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돌봄을 모두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 돌봄시간 외에 돌봄유형별로 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을 따로 떼어서 보거나 비교할 때에는 부모 각자가 돌봄유형별로 균형 있게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분류를 적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기타 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돌봄시간 뿐 아니라 주로 어떤 활동에, 어떤 패턴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참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승미(1997)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특성을 어머니의 양육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주로 참여하는 자녀양육활동은 시간을 융통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주말에 주로 행해지는 여가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비사회적인 활동의 특성을 가지는 어머니의 주된 자녀양육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이 좀 더 의무적인 특성을 지닌다면, 아버지에게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반(半)여가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는 것이다. 손문금(2005) 또한 무급노동 참여 종류에서 맞벌이 부부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돌보기에 있어서 여성은 미취학 아이의 신체 돌보기를, 남성은 미취학 아이와 놀아주기와 같은 노동을 주로 담당한다고 하였다. 안수미 외(2013)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관련 시간에서 자녀와의 공유시간이 자녀돌보기 시간에 비해 많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아버지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자녀에게 행해지는 돌봄노동이라기보다 여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 남아 있지만,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돌봄 참여 특성에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정은과 서지원(2021)이 2004-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참여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 돌봄에의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

를 위한 필수 돌봄에의 참여율보다 높았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점차 증가할 뿐 아니라 발달 돌봄은 물론 필수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또한 늘어났다는 사실은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의 특성을 보여주는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돌봄의 실태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돌봄시간과 참여율은 물론, 돌봄행동의 성격에 따라 돌봄유형을 구분하여 아버지의 참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맞벌이 여부 및 근무일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연도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부모의 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서구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김소영·진미정, 2016; 송유진, 2011). 2004년-2019년까지의 세대별 양육 참여의 변화 경향 또한 유배우 청년세대(20-30대)(서지원, 2020)와 중년세대(20-50대)(고선장, 2020) 모두에서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경향으로 자녀수는 줄고 있지만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시간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녀돌봄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라는 상황적 요인과 맞물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점차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관련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이를 반영한 바람직한 아버지상(象)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실제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정은과 서지원(2021)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평일 미취학자녀 돌봄 시간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의 변화 추이도 차이를 보이는데, 2004년-2019년 15년간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23.3분에서 47.0분으로 23.7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23.6분에서 37.3분으로 13.7분 증가하여,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더 큰 증가를 보여주었다.

자녀양육을 함께 담당하는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은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련 선행 연구에서 맞벌이 여부나 어머니의 근로시간 등이 아버지의 자

녀돌봄 시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차이를 나타냈다(서지원·이정은, 2021).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 자녀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가 42.8분, 외벌이 아버지가 36.9분이며, 근무일 자녀돌봄 참여율은 맞벌이 아버지 64.7%, 외벌이 아버지 60.8%로, 자녀돌봄 시간과 자녀돌봄 참여율 모두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는 평일과 휴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안수미 외(201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평일 평균 17분, 일요일 32분이며, 참여율은 평일 33.0%, 일요일 40.0%로, 시간과 참여율 모두 차이를 나타냈다. 이 중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는 평일에 56.7%가, 일요일에 71.5%가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이현아 외(201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어린 자녀를 둔 30대 아버지의 경우 주중 59분, 주말 143분의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또한 평일과 휴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아 외(2016)에 의하면 아버지의 주중 자녀돌봄 시간은 근무용통성과 정시퇴근도 같은 아버지의 근무조건변인에 의해 가장 많은 부분 설명되는 반면, 주말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은 연령 소득수준, 근무용통성, 자녀 나이 등이었다. 김나영(2017)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 결정요인은 주중 돌봄시간과 주말 돌봄시간 간에 차이를 보였다. 주중 돌봄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은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월소득, 출퇴근 소요시간, 직종, 육아지원제도 유무와 배우자 이용 경험이며, 주말 돌봄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은 미취학자녀수, 자녀 연령, 출퇴근 소요시간, 아버지 연령, 직종이었다.

이와 같이 맞벌이 여부와 근무일 여부는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근무일 여부를 분석의 틀로써 포함하였다.

3.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자녀돌봄 수요나 아버지의 시간가용성과 관련한 요인, 또는 자녀돌봄 관련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다.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자녀연령, 자녀수와 같은 자녀 관련 변수는 돌봄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돌봄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는 더욱 그러하다. 최유정, 최미라와 최셋별(2019)에 의하면 생활주기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수행과 돌봄 노동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변수로서, 자녀가 커갈수록 가족 형성기와 비교해 아버지의 돌봄 노동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자녀 연령을 취학 전과 학령기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영유아기를 하나의 시기로 묶어 분석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영유아기 내에서도 만 0-2세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돌봄에 대한 요구는 그 내용과 양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영아 자녀와 유아 자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은주와 김진옥(2016)은 어릴수록 발달속도가 빠르고 연령에 따라 돌봄욕구에 차이가 크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유아자녀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녀의 연령을 0-2세와 3-5세로 구분하여 부모의 자녀돌봄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장애 요인은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무조건이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안수미 외(2013)는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돌보기시간은 물론 가사공유시간, 여가공유시간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도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소영과 진미정(2016),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일관되게 자녀돌봄 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현아 외(2016)는 아버지의 근무용통성이, 김나영(2017)은 근로시간, 직장유형, 근로시간형태가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 시간가용성 관련 요인들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르게 작용하였다. 어머니에게 취업여부는 자녀돌봄 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에게는 본인 취업 여부와 시간제노동/전일제노동 여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간가용성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배우자 취업과 미취학아동수와 같은 돌봄 수요 요인도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동돌봄 책임 분담에 이중부담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무 조건 같은 객관적 요인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부족감도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은정과 이성립(2013), 김세리와 이강이(2018)의 연구에서 자녀돌봄 유형에 따라 영유아 어머니의 시간부족감에는 차이가 있으나, 아버지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요인들은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성역할태도 등이다.

이현아 외(2016), 최유정 외(2019), 이정은과 서지원(202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연령은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돌봄 시간이 길었다.

Sullivan(2010)은 1965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에 영국의

고학력 남성에게서 자녀돌봄시간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고학력, 중산층 아버지들 사이에서 참여적 아버지 역할 문화가 확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 또한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에 비해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송유진, 2011; 이정은·서지원, 2021; 주은선 외, 2014; 차은호·유조안, 2020). 송유진(2011)은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자녀 연령에 따라 돌봄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신체적 돌보기와 놀아주기 시간이, 학령기 자녀의 경우는 공부 봐주기 시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이지 않았다.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남성의 돌봄시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노혜진(2014)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행위주체별 돌봄의 배열에 차이가 나타났다. 고은주와 김진옥(2016)은 높은 소득이 상호작용적 돌봄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낮은 소득은 자녀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안수미 외(2013)와 이현아 외(201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송유진(2011)과 주은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았을 때,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최근에 올수록 강해졌다고 하였으며, 이정은과 서지원(2021)은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간에 그 영향이 다르며,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성평등의식은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아버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미취학자녀수, 영아자녀유무, 주당근로시간, 시간부족감, 성역할태도를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취학자녀를 맞벌이/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에서 공개한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전국 12,388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6,091명의 시간일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원자료 중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과 아버지만 시장노동을 하는 외벌이 가정 아버지의 시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녀돌봄 관련 상황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추출 결과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시간일지 1,946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근로일의 시간일지는 총 1,407부이며, 비근로일의 시간일지는 총 539부였다. 시간일지 자료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행동은 '주 행동'으로서의 자녀돌봄 행동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로 분류되는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를 자녀돌봄 행동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에 사용한 시간을 자녀돌봄 시간으로 보았다. 자녀돌봄 행동에 대한 통계청(2020)의 구체적인 분류 해설은 <표 1>과 같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서 질문지 조사방식으로 함께 수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주관적 인식 등의 관련 변수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은 <표 2>와 같다.

<표 1> 자녀돌봄 관련 행동 분류 해설

분류명	분류 해설	
가족 및 가구원 만 10세 미만 돌보기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을 먹이거나, 입히고, 씻기는 등 돌보는 행동
	간호하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아픈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을 간호하는 활동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을 학습시키기 또는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 등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 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함께 대화하는 활동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과 놀아주거나 함께 스포츠를 하는 활동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만 10세 미만 가족 또는 가구원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보육, 교육기관의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활동
	기타 돌보기	만 10세 미만의 아이 돌보기 활동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돌봄 관련 행동 자녀 밥 차려주기, 자녀 이부자리 깔아주기, 유치원·어린이집 버스 기다리기 등 (자녀와 상호작용 없이 지켜보는 행동은 기타 돌보기로 분류)

출처: 통계청(2020). 201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1권 생활시간량편, 515-516.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변수명	정의와 측정	
자녀 돌봄 시간과 참여율	전체 돌봄	2019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의 대분류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중 중분류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에 해당하는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총합
	필수 돌봄	자녀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활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에 사용한 시간
	발달 돌봄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자녀의 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활동 하기')에 사용한 시간
	기타 돌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속하지 않는 돌봄 관련 활동(행동분류표의 소분류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에 사용된 시간
참여율	전체 응답 중 위의 자녀돌봄 관련 활동에 각각 10분 이상 시간을 사용한 응답의 비율(10분 단위로 시간 사용을 기입하므로 해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비율임)	
개인/가족 특성	교육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하)', '400-600만원 미만(중)', '600만원 이상(상)'으로 구분
	맞벌이 여부	가구주의 배우자가 가구원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동거하지 않는 경우 제외) 맞벌이 또는 외벌이 구분
	미취학자녀수	취학 전인 자녀의 수
	영아자녀 유무	자녀 중 영아(만 2세 이하)자녀 유무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지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입)
	시간부족감	평소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값이 클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을 의미함 (1-4점)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임을 의미함 (1-4점)	

4.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맞벌이,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과 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 유형별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38.0세이며, 연령별 구성은 30대(61.2%)와 40대(33.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대(3.9%)

와 50대(1.1%)가 일부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2.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이 전문대졸(26.8%)이고, 고졸 이하는 20.7%를 차지했다. 부부의 취업상태는 외벌이가 54.7%, 맞벌이가 45.3%였다. 연구 대상 가정의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39.9%로 가장 많고, 400-600만원 미만(37.4%), 600만원 이상(22.7%)의 순이었다. 연구 대상 가정의 미취학자녀수는 평균 1.3명이며, 이 중 만 2세 이하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3.9%에 해당했다.

연구 대상자의 주당 근로시간(주업)은 평균 48.6시간이며, 이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평등주의적인 편이었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행위자율)은 어떠한지 맞벌이여부 및 돌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살펴보겠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 M(SD)	변수		빈도(%) / M(SD)
연령 (평균 38.0세)	20대	76(3.9)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64(54.7)
	30대	1190(61.2)		맞벌이	882(45.3)
	40대	658(33.8)		400만원미만	770(39.9)
	50대	22(1.1)		400-600만원 ↓	724(37.4)
교육수준	고졸이하	402(20.7)	영아자녀 유무	600만원이상	438(22.7)
	전문대졸	522(26.8)		있다	466(23.9)
	대졸이상	1022(52.5)		없다	1480(76.1)
미취학자녀수(명)		1.3(.5)	주당 근로시간(시간)		48.6(11.4)
시간부족감(4점)		3.3(.8)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4점)		2.9(.8)

(N=1,946)

<표 4>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

구분		전체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	
		평균(분)	비율(%)	평균(분)	비율(%)	평균(분)	비율(%)	평균(분)	비율(%)
돌봄 시간 (분/%)	맞벌이 (882)	전체	64.2	28.7	44.7	30.4	47.4	5.1	7.9
		근무일(657)	44.0	20.3	46.1	20.0	45.5	3.7	8.4
		비근무일(225)	123.2	53.0	43.0	60.9	49.4	9.3	7.5
외벌이 (1,096)	전체	전체	62.9	28.6	45.5	29.9	47.5	4.4	7.0
		근무일(750)	37.3	15.9	42.6	19.8	53.1	1.6	4.3
		비근무일(346)	120.5	59.0	49.0	52.5	43.5	9.0	7.5
참여율 (%)	맞벌이 (882)	전체	70.9	50.6	44.0	14.7			
		근무일(657)	65.1	46.0	36.8	13.5			
		비근무일(225)	87.6	64.0	64.9	18.2			
외벌이 (1,096)	전체	전체	69.9	48.0	46.2	9.2			
		근무일(750)	62.7	39.1	40.4	5.5			
		비근무일(346)	87.3	69.4	60.2	18.5			

* $p < .05$, ** $p < .01$, *** $p < .001$

맞벌이 아버지는 하루 평균 64.2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며, 그 중 47.4%에 해당하는 30.4분을 발달돌봄에 사용하고, 다음으로 28.7분(44.7%)을 필수돌봄에 사용하며, 5.1분(7.9%)을 기타돌봄에 사용하였다. 맞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전체 돌봄시간은 44.0분이며, 비근무일의 전체 돌봄시간은 123.2분이었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하루 평균 하루 평균 62.9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며, 그 중 47.5%에 해당하는 29.9분을 발달돌봄에 사용하고, 다음으로 28.6분(45.5%)을 필수돌봄에 사용하며, 4.4분(7.0%)을 기타돌봄에 사용하였다.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전체 돌봄시간은 37.3분이며, 비근무일의 전체 돌봄시간은 120.5분이었다.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평균 돌봄시간을 분석해 보면,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외벌이가정 아버지 모두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9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며, 그 중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보다 1-2분 정도 많았다.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전체 돌봄시간은 각각 하루 평균 64.2분, 62.9분으로,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외벌이 아버지보다 많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경향 자체는 다르지 않으나 그 차이는 1.3분에 불과했다. 돌봄유형별로도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맞벌이 28.7분, 외벌이 28.6분), 발달돌봄 시간(맞벌이 30.4분, 외벌이 29.9분), 기타돌봄 시간(맞벌이 5.1분, 외벌이 4.4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비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이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의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간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가 근무일에는 6.7분, 비근무일에는 2.7분으로, 근무일의 차이가 비근무일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시간의 차이는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무일의 경우 필수돌봄(맞벌이 20.3분, 외벌이 15.9분)과 기타돌봄 시간(맞벌이 3.7분, 외벌이 1.6분)은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많고, 발달돌봄 시간(맞벌이 20.0분, 외벌이 19.8분)은 비슷했다. 반면 비근무일의 경우에는 필수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53.0분)가 외벌이 아버지(59.0분)보다 적고, 발달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60.9분)가 외벌이 아버지(52.5분)보다 많으며, 기타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가 비슷했다(맞벌이 9.3분, 외벌이 9.0분).

돌봄유형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패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 필수돌봄 시간(20.3분, 전체 돌봄시간의 46.1%)과 발달돌봄 시간(20.0분, 45.5%)이 비슷하고 비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시간(53.0분, 43%)이 발달돌봄 시간(60.9분, 49.4%)보다 적었다. 반면, 외벌이 아버지는 근무일에 발달돌봄 시간(19.8분, 전체 돌봄시간의 53.1%)이 필수돌봄 시간(15.9분, 42.6%)보다 많

고, 비근무일에는 역으로 필수돌봄 시간(59.0분, 49.0%)이 발달돌봄 시간(52.5분, 43.5%)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율, 즉 행위자율을 살펴보겠다.

먼저 근무일과 비근무일 구분 없이 분석해 보면,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각각 70.9%, 69.9%로 비슷하며, 맞벌이든 외벌이든 70% 가량의 아버지들이 10분 이상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돌봄참여율의 경우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근무일에 비해 비근무일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맞벌이 경우 근무일 65.1%, 비근무일 87.6%, 외벌이 경우 근무일 62.7%, 비근무일 87.3%). 다만 근무일의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간 참여율 차이(2.4%)가 비근무일의 차이(0.3%)보다 조금 더 컸다.

아버지의 돌봄 참여율을 돌봄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50.6%, 발달돌봄 참여율이 44.0%, 기타돌봄 참여율이 14.7%이고,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48.0%, 발달돌봄 참여율이 46.2%, 기타돌봄 참여율이 9.2%였다.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외벌이 가정 아버지 모두 돌봄 참여율은 필수돌봄 > 발달돌봄 > 기타돌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필수돌봄 참여율은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다소 높고(맞벌이 50.6%, 외벌이 48.0%), 발달돌봄 참여율은 외벌이 아버지가 맞벌이 아버지보다 높으며(맞벌이 44.0%, 외벌이 46.2%), 기타돌봄 참여율은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높았다(맞벌이 14.7%, 외벌이 9.2%).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공통으로 세 가지 돌봄유형 모두 근무일보다 비근무일의 참여율이 높았다.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보면, 돌봄유형별 참여율은 위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46.0%)이 발달돌봄 참여율(36.8%)보다 크게 높은 반면, 비근무일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필수돌봄 참여율 64.0%, 발달돌봄 참여율 64.9%).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경우에는 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39.1%)과 발달돌봄 참여율(40.4%)이 비슷한 반면, 비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69.4%)이 발달돌봄 참여율(60.2%)보다 높았다.

3.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 사용에 대한 영향 요인

위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이제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1)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 5>, <표 6>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구분한 후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로 구분한 후 이들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필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각각 네 개씩 구성하였다²⁾.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전체 회귀모형에 대해 회귀모형 적합도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회귀모형에서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우며, VIF값의 범위는 1.08 ~ 1.56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는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의 네 가지 회귀모형 중 맞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필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 비근무일의 필수돌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세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2.7%, 3.4%, 22.2%였다. 맞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 발달돌봄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마지막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취학자녀수, 영아자녀유무, 연령, 주당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주당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발달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부족감만으로, 시간부족을 덜 느낄수록 근무일의 발달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의 필수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은 미취학자녀수, 영아자녀유무와 같은 가정 내 돌봄 요구와 관련된 변수들이었다. 즉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필수돌봄 시간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 반면, 발달돌봄은 영향요인이 매우 적거나 없었다. 영아자녀유무나 미취학자녀수 같은 돌봄 수요 관련 요인은 근무일이든 비근무일이든 맞벌이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발달돌봄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일에 있어서 좀 더 시간사용의 융통성이 적은 필수돌봄 시간의 경우 객관적 요인인 주당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융통적으로 시간 사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발달돌봄 시간의 경우 주관적 요인인 시간부족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근무일				비근무일			
	필수돌봄		발달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B	β	B	β	B	β	B	β
(Constant)	36,826		26,361		52,099		11,966	
연령	-.706	-.107**	.130	.017	-2,052	-.113	.333	.021
교육수준(기준: 전문대졸)								
고졸이하	-.127	-.002	-2,571	-.030	-15,496	-.076	2,847	.016
대졸이상	4,042	.064	6,329	.087	-19,849	.126	18,246	.134
가구소득(기준: 중)								
하	.787	.011	1,621	.019	-17,939	-.096	-3,894	-.024
상	1,116	.017	1,333	.017	-9,486	-.059	-2,412	-.017
미취학자녀수	15,293	.249***	02,237	-.031	470317	.320***	11,256	.088
영아자녀유무	15,046	.168***	3,540	.034	52,570	.257***	.805	.005
주당근로시간	0,233	-.082*	-.112	-.034	-.251	-.036	.096	.016
시간부족감	-1,710	-.042	-4,646	-.098*	5,190	.050	-4,078	-.045
성역할태도	.953	.024	2,787	.061	-.416	-.004	6,619	.077
F값	9,340***		2,248*		6,093***		.608	
R ²	.127		.034		.222		.028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돌봄 유형 중 '기타 돌봄'은 대상자들의 시간 사용도 적고 참여율도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근무일				비근무일			
	필수돌봄		발달돌봄		필수돌봄		발달돌봄	
	B	β	B	β	B	β	B	β
(Constant)	-9.834		28.079		-29.693		65.356	
연령	-.142	-.024	-.048	-.007	-.652	-.043	-.326	-.024
교육수준(기준: 전문대졸)								
고졸이하	2.729	.039	-3.240	-.042	-9.365	-.048	-20.172	-.116
대졸이상	3.729	.065	-3.791	-.060	1.307	.009	10.509	.081
가구소득(기준: 중)								
하	5.171	.090 [*]	.211	.003	18.269	.127 [*]	15.453	.120
상	-1.851	-.021	1.037	.011	-10.187	-.053	-3.269	-.019
미취학자녀수	14.426	.259 ^{***}	5.954	.097 [*]	50.381	.356 ^{***}	10.768	.085
영아자녀유무	11.538	.186 ^{***}	2.346	.034	59.955	.396 ^{***}	2.615	.019
주당근로시간	-.162	-.068	-.356	-.135 ^{**}	.142	.020	.132	.021
시간부족감	-.225	-.006	1.081	.026	-3.307	-.034	-4.630	-.053
성역할태도	4.267	.123 ^{**}	.505	.013	7.677	.086	-6.127	-.077
F값	10.400 ^{***}		2.136 [*]		10.269 ^{***}		1.419	
R ²	.124		.015		.255		.045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6〉은 미취학 자녀를 둔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의 네 가지 회귀모형 중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필수돌봄 시간과 발달돌봄 시간, 비근무일의 필수돌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세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2.4%, 1.5%, 25.5%였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 발달돌봄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마지막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취학자녀수, 영아자녀유무, 성역할태도,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의 발달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당근로시간과 미취학자녀수로, 주당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근무일 발달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의 필수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은 영아자녀유무, 미취학자녀수와 같은 가정 내 돌봄 요인과 관련되는 변수와 가구소득이었다. 즉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인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외벌이 아버지의 비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

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필수돌봄 시간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 반면 발달돌봄은 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었다. 외벌이가정에서도 영아자녀유무나 미취학자녀수 같은 돌봄 수요 관련 요인은 근무일이든 비근무일이든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발달돌봄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실태와 영향 요인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행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자녀돌봄 행동을 돌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버지 개인 특성 및 가구 특성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 평균 약 44분, 비근무일 평균 약 123분,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 평균 약 37분, 비근무일 평균 약 125분으로, 비근무일에 근무일의 3배 이상의 시간을 자녀돌봄에 할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돌봄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근무일에는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돌봄시간이 더 많지만(6.7분 차이), 비근무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2.7분 차이).

맞벌이 아버지는 비근무일에 필수돌봄은 근무일의 약 2.5배, 발달돌봄은 약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외벌이 아버지는 비근무일에 필수돌봄에는 근무일의 약 4배, 발달돌봄에는 약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맞벌이 아버지보다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 시간 차이가 더 컸다. 즉 외벌이 아버지들은 비근무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맞벌이 아버지는 근무일 평균 약 65%, 비근무일 평균 약 88%이며, 외벌이 아버지는 근무일 평균 약 63%, 비근무일 평균 약 87%로, 근무일에 비해 비근무일에 크게 높았다.

맞벌이가정 아버지와 외벌이 가정 아버지 모두 돌봄 참여율은 필수돌봄 > 발달돌봄 > 기타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보면, 돌봄유형별 참여율은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발달돌봄 참여율보다 크게 높은 반면, 비근무일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외벌이가정 아버지의 경우에는 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비슷한 반면, 비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발달돌봄 참여율보다 높았다.

셋째,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에 있어서 비교되는 결과는, 맞벌이 아버지는 연령과 주당근로시간의 영향을 받는 반면 외벌이 아버지는 성역할태도와 가구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부부 모두 시간가용성이 낮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필수돌봄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며 주당근로시간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허용되는 한 더 많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으로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이 높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자녀돌봄 참여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정은과 서지원(2021)도 성평등의식은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간에 그 영향이 다르며,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부모의 돌봄을 대체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함으로써 아버지의 돌봄 참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특히 맞벌이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외벌이 가정에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돌봄유형 중 발달돌봄 시간의 경우 필수돌봄 시간과 달리 맞벌이, 외벌이 아버지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된 여러 독립변수들에 의해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필수돌봄 시간에 상대적 영향력이 큰 영아자녀유무나 미취학자녀수 같은

돌봄 수요 관련 요인도 근무일이든 비근무일이든 발달돌봄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돌봄시간과 돌봄 참여율 모두 비근무일에 더 높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시간가용성이 높은 비근무일에 근무일에 비해 더 많은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아버지들에게 자녀돌봄에 사용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당근로시간이 맞벌이 아버지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과 외벌이 아버지의 근무일 발달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인식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통한 시간가용성의 제고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필수돌봄의 경우 시간을 융통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일 매일의 돌봄 요구가 그 때 그 때 충족되어야 하며, 비근무일에 몰아서 하는 자녀돌봄 행태로는 필수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자녀돌봄 참여의 변화 경향이다. 선행 연구에서 대체로 아버지들은 필수 돌봄의 성격을 가지는 자녀돌봄 활동보다는 발달 돌봄의 성격을 가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등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필수 돌봄과 발달 돌봄에 사용한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시간이 비슷하며,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는 필수돌봄 시간이 발달돌봄 시간에 비해 다소 적지만 비근무일에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비근무일에 발달돌봄 시간이 필수돌봄 시간보다 많지만 필수돌봄에 덜 참여한다기보다, 필수돌봄의 성격상 돌봄에 요구되는 일정 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비근무일의 경우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유동적인 성격의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서 근무일의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 참여와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필수돌봄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이정은·서지원, 2021), 이러한 긍정적 변화 경향이 비근무일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필수 돌봄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 근무일에 부모 모두 시간가용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좀 더 긴급하고 필수적인 성격의 필수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간에는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별 참여 패턴에 차이가 나타난다. 근무일에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 돌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시간가용성이 높은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근무일에 필수돌봄보다 발달돌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비근무일에는 맞벌이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는 돌봄 수요에 맞추어 어머니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감안하여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필수돌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근무일에는 미취학자녀수, 영아자녀유무와 같은 돌봄 요구 관련 변수 뿐 아니라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 연령, 가구소득, 성역할태도와 같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며, 비근무일에도 돌봄 요구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발달돌봄은 근무일에 맞벌이 아버지의 시간부족감과 외벌이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라는 시간 관련 주관적·객관적 요인 외에는 다른 영향 요인이 거의 없었으며, 비근무일에는 영향 요인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상(象)이 변화하고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참여하는 발달 돌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참여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 필수 돌봄에 있어서는 여러 관련 요인들에 따른 양육 참여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을 단지 '돕는' 차원을 넘어서 부부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함께 해나가는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돌봄 또한 발달돌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로 인식하는 아버지들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시간근로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의 부족, 직장 내 문화 등의 문제로 아버지들은 이상적인 아버지상(象)과 실제 현실 간에 괴리를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양육 참여를 위한 시간과 조건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성역할태도나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요구된다. 가족센터나 영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

다.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 중심의 아버지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일회성 활동 위주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넘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는 내용 및 아버지로서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역할을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능숙하게 익힐 수 있는 훈련교육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 특히 상대적으로 여가적 특성이 강하며 훈련과 숙련이 덜 요구되는 발달돌봄에 비해 필수돌봄은 발달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양육기술의 습득과 훈련이 더욱 요구되는 돌봄활동이므로 아버지의 필수 돌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을 돌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돌봄 행태와 관련하여 전체 돌봄시간량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돌봄유형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근무일 여부와 돌봄유형에 따라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현황을 정확히 파악, 진단하고 부모 공동돌봄과 공동책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녀돌봄시간의 총량만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돌봄유형을 구분하고 돌봄시간과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 참여는 매우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행동'으로서의 자녀돌봄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계점을 가진다.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한 권순범과 진미정(2016)은 다른 행동을 하는 중에도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자녀에 대해 신경 쓰는 등 부모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차적 행동으로 일어난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수미 외(2013)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갖고 있는 반(半)여가적 특성으로 인해 돌봄노동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과소측정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윤자영(2018)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TV 시청과 같은 여가·문화 활동이나 청소, 설거지 같은 가사 활동, 식사하기와 같은 개인 유지활동을 할 때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자녀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는 형태의 돌봄노동, 즉 '간접 돌봄노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응답자가 돌봄노동으로 개념화하지 않아 생활시간조사에서 동시행동으로 포착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측정도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차적 행동', '간접 돌봄노동'으로서의 자녀돌봄 행동까지 포

3)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교육의 내용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요구(김민석, 2020), 아버지 효능감과 자존감에 대한 요구(이현아·박철·김선미, 2017)가 가장 높았으며, 영유아 생활태도 관리, 건강관리, 부모자녀관계형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아버지역할훈련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기를 원하였다(손순복, 2016).

함하여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부가 동거 중인 가정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버지의 자녀돌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말 부부 등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가정, 한부모가정, 3세대 동거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상황을 반영한 아버지 돌봄 관련 연구들이 후속 연구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20). 중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20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1-77.
- 2) 고은주 · 김진욱(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26(4), 35-62. DOI : 10.15709/hswr.2016.36.4.35.
- 3) 권순범 · 진미정(2016).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 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27-43. DOI : 10.7466/JKHMA.2016.34.3.27.
- 4) 김광웅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2.
- 5) 감나영(2017).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동정책연구, 17(4), 31-54. DOI : 10.16975/kjfs.67.3.1.
- 6) 김민석(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세리 · 이강이(2018).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3), 1-19. DOI : 10.14698/jkce.2018.14.03.001.
- 8) 김소영 · 진미정(2015).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71-88. DOI : 10.7466/JKHMA.2015.33.2.71.
- 9) 김소영 · 진미정(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 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1-19. DOI : 10.7466/JKHMA.2016.34.5.1.
- 10) 김외숙 · 송혜림 · 조희금 · 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 11) 노혜진(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 12) 박은정 · 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13) 박희숙(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발달 간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0(3), 251-272.
- 14) 서석원 · 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15) 서지원(2020). 청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20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5-69.
- 16) 서지원 · 이정은(2021).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9(2), 29-45. DOI: 10.7466/JFBL.2021.39.2.29.
- 17)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18) 손순복(2016).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역할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97-220. DOI : 10.22155/JFECE.23.3.197.220.
- 19)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5.
- 20) 안수미 · 이기영 · 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 21) 양심영 · 김유경(2013).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75-91.
- 22) 윤자영(2018).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자녀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171-200.
- 23) 이승미(1997).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이영환 ·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25) 이재림 · 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26) 이정은 · 서지원(2021).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추이 분석(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103-120. DOI: 10.22626/jkfma.2021.25.3.007.
- 27) 이현아 · 김선미 · 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 28) 이현아 · 박철 · 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9.
- 29) 장영애 · 이영자(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3), 619-629.
- 30) 주은선 · 김사현 · 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건연구, 30(2), 367-400.
- 31) 통계청(2020). 201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1권 생활시간량편(표1-5).
- 32) 차은호 · 유조안(2020).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 -돌봄시간 격차의 변화와 분해-. 한국가족복지학, 67(3), 5-33. DOI : 10.16975/kjfsw.67.3.1.
- 33) 최유정 · 최미라 · 최셋별(2019).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DOI : 10.31502/SSRI.50.1.1.
- 34) Bianchi, S., Cohen, P. N., Raley, S. & Nomaguchi, K. (2004). Inequality in Parental Investment in Child-Rearing: Expenditures, Time, and Health. Social Inequal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89-219.
- 35) Craig, L. & Mullan, K. (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861.
- 36) Del Boca, D., Flinn, C. & Wiswall, M. (2013). Household Choices and Chil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137-185.
- 37)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s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 투 고 일 : 2022년 03월 13일
■ 심 사 일 : 2022년 04월 08일
■ 게재 확정일 : 2022년 05월 10일